

News

주담대 고정금리 석달만에 다시 최고 年7%대로

동아일보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연 4.93~7.281%로 집계… 상단이 7% 넘어선 것은 6월 23일 이후 석 달 만… 전월비 1.21%p 증가

미국의 연속된 자이언트스텝 등으로 채권 금리 급등했기 때문… 주담대 변동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도 연 7% 돌파 앞둬… 다만 예대금리차 공시 등 영향으로 추가 금리 인하 중

'이자폭탄' 우려에도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80% 넘어

매일경제

올 7월중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2.3%로 예년 평균인 66.2%를 크게 웃돌아… 잔액 기준으로는 78.4%로 평균 68.5% 한참 넘어…

대출종류별로는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신규취급액 기준 51.1%… 신용대출은 91.6%가 변동금리로 파악… 장단기금리차 확대가 영향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된다…다섯번째 연장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재연장하기로…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장, 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까지 가능

다섯 번째 연장… 이 외에도 금융위는 다음달 4일부터 출범할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 중소기업 대상 6조원 규모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30일부터

카뱅, 교보문고 등 3700만 데이터 활용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머니투데이

카카오뱅크, 업계 최초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11개 기관의 가명 결합 데이터 3,700만건을 활용해 독자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 개발

기존 금융 정보 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 정교한 평가 어려운 중저신용고객 및 캠퍼스일자리 고객 위해 대안 정보 위주로 만든 모형… 잠재 고객군 확대할 계획

작년 손해율 107.5%…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힘받나

서울와이어

일부 보험사들, 최근 금융당국에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해… 5년이 되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시점… 10% 이상의 인상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업계는 3세대 포함해 1~2세대 보험료도 함께 논의할 예정… 다만 경기가 어려워진 점 고려해 10% 인상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12월 중순이면 가닥 잡힐 예정

이번엔 KB손보 손잡은 국민은행… 두번째 외화증권대차 계약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 KB국민은행과의 채권 대차거래를 위한 대여 한도 승인 의결… 이번 계약으로 KB손보는 보유한 외화 유가증권을 활용한 대여 거래 가능

KB국민은행은 최근 신한라이프와도 유사한 계약 체결… 신한라이프는 국내 보험사 중 미국 달러 채권을 그나마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유사시 대비 다양한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중

카카오페이증권, 16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

매일경제

카카오페이증권, 187만 7,797주를 새로 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 계획… 1,579억원 규모로 동사가 지금까지 실시한 유상증자 중 가장 큰 규모

이번 유상증자로 동사 자기자본은 3,183억원으로 증가해 기존의 2배로 증가… 모회사 카카오페이의 지분은 63.34%로 동일한 비율로 유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목적

1000조로 커진다는데..OCIO 시장, 높은 진입장벽에 과점 논란

머니투데이

현재 국내 OCIO 주간운용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사가 진행 중… 입찰과정 진입장벽으로 과점화 우려 제기

정량 평가 통과한 증권사나 운용사가 정성 평가 거치는데, 정량 평가시 사용하는 표준화 점수방식이 후발주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 업계에서는 경쟁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